

한라포커스 **해저 쓰레기장 전략한 제주항 <중>**

바닷속 들어가보니... 각종 쓰레기 범벅

페타이어·페취수관·페인트통·비닐류 등 수북
제주시 취수관 유입 수족관 오염물질 조사뿐

제주시 제주항 서부두 내항 바닷속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해양탐사특별취재팀은 지난 12일 제주항 내항의 수중오염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수중탐사를 진행했다. 내항의 수질은 해상에서 보는 것 보다 심각했다.

서부두에 위치한 제주대학교 제주항검조소와 서부두 방파제 사이에는 인근 횃집의 수족관과 연결된 취수관 수십 개가 바다에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수관 흡입구 주변에는 비닐류를 포함한 각종 부유물질들이 가득했다.

제주시수협 방파제 인근 수중에서는 페취수관이 다량으로 목격됐다. 오래된 취수관을 교체한 뒤 바닷속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횃집과 연결된 취수관 인근에는 페타이어 및 페인트통 등 각종 쓰레기와 침전물이 가득했다. 손으로 침전물을 긁



버려져있는 페타이어(위)와 바닥을 긁자 침전물이 뿌옇게 피어 오르는 모습.

으니 가라앉은 침전물은 순간 희뿌옇게 떠오르며 바닷속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문제는 제주항 서부두 주변 약 20여 개의 횃집이 대부분 이처럼 제주

항 내 오염된 바닷물을 끌어다 쓰고 있고, 도내 활어 수송차들도 제주항 내항의 오염된 바닷물을 취수하고 있는 점이다. 여과기를 통해 정화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모래를 이용한 정화장치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현장을 찾았을 당시 서부두 주변 횃집에는 바닷물을 정화하는 대형 여과기가 설치된 업소가 있는 반면 주변 장소가 협소해 미처 여과기를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주변 업소 상인은 "이곳 횃집 대부분 서부두에 연결된 취수관을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오고 있고 여과기를 통해 끌어온 바닷물을 정화하고 있다"며 "수십 년 전부터 서부두 내 바닷속에 취수관을 연결해 바닷물을 끌어온 뒤 수족관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항 밖까지(취수관을) 연결하는 것은 큰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5월 발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대상' 고시를 통해 음식점이 공유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횃집 등 업소들은 바다에 취수관을 이용해 바닷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 위생부서는 매년 해안 인근에 있는 횃집 등을 대상으로 수족관 내 비브리오팀 오염 여부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화시설이나 취수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수관을 통해 끌어온 바닷물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서부두 인근 횃집 업소 15곳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팀 오염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1차 검사 결과 15곳 중 3곳에서 장염비브리균이 발견됐지만, 2차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수족관 물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횃집마다 여과기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제주시 해안가 지역에 소재한 횃집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호·이태윤기자



장맛비에 등산로 통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된 24일 한라산에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져 산악 탐방안내소에 등산로 통제 안내문이 내걸렸다. 강희만기자

국회서 4·3특별법 개정 토론회 열린다

제주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 29일 개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국회 개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송재호·오영훈·위성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주제는 '4·3특별법 개정 방향 및 입법 전략'이다.

토론회는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지정 토론에는 서상범(사)과거정산통합연구원 상임이사,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이상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 홍수정 4·9통일평화재단 조사실장, 양동운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이 참여한다. 국회·부미현기자

서귀포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 관심

학술용역심의위 용역 심사

서귀포시 문섬과 서귀포항만 일대에 조성되는 해중경관지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운영주체 설정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해중경관지구 해중생태계 현황 조사 및 보존·이용 계획 수립 용역을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안전으로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은 서귀포

시 문섬 일원과 서귀포항만 부지에 총 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도비 200억원)을 투입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해양레저체험센터, 선박계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용역을 통해 운영방식, 운영조직 인력과 구성방안, 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국내외 유사한 운영 사례를 분석해 운영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창출과 서귀포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검토하게 된다.

도는 용역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진기자

하루 새 200mm 폭우... 오늘까지 비

제주지역에 하루 사이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북부지역, 추자도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반면 제주도 산지와 남부 지역에 발효된 호우경보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202mm, 영실 187.5mm, 윗세오름 186mm, 신례 112.5mm, 강정·중문 각각 105.5mm 등이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38.2mm와 83.6mm를 기록했다.

폭우가 내린 영향으로 한라산 7개 코스에서 등반이 전면 중단됐다. 또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숙박시설 지하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25일 오후 3시까지 계속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북부와 서부지역의 경우 25일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30~80mm다. 기상청은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했다. 이상민기자

제70주년 6·25 특집... 5·8면

30년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농업용 유류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전문기업

특허출원

서터 차원이 다릅니다.

농업용 환풍기

FTA 보조사업 지정
도내 생산업체

| 기종명 | 환풍기 KYF-90A | 환풍기 KYF-90B |
|--------|------------------------|------------------------|
| 크기(mm) | 900x900 | 900x900 |
| 높이(mm) | 360 | 360 |
| 형식 | 축류식 | 축류식 |
| 축능력 | 0.65kw | 0.65kw |
| 회전수 | 860 rpm | 680 rpm |
| 재질 | 스텐레스, 알루미늄 | 스텐레스, 알루미늄 |
| 풍량 | 135m ³ /min | 117m ³ /min |

스텐날개

패드 양면일체형

한국전기용품안전인증업체(SP07001-20001)

FTA 보조사업

공기순환팬 (송풍기)

IP54 인증

농업용 공기순환팬의 성능과 효과

- ▶ 발병 억제 효과
- ▶ 생육의 균일화
- ▶ 고온의 대책과 온도 편차의 해소
- ▶ 증산작용의 증대(광합성의 촉진)

[주] 건양에너지

제주본사 제주시 거로중길 57-12
T. 064)725-2333, F.064)725-2334

서귀포지사 서귀포시 서호로 49(송반천)
T.064)733-0110, F.064)733-4858